

오이

오이의 학명인 *Cucumis*는 라틴어로 '기운내가 된 익기'를 의미한다. 이어 오이를 가운데 두 조각내면 꽃실 속에 배어있는 모습이 헝겊 식기 모양에서 비롯된 이름일 것이다. 우리 토풍 오이도 놀은 노각 오이를 질리보면 기운내기 마련인 것이다. 그 특성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우리나라에 오이가 도입된 것은 환산자연 인도 서북부에서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에 재배된 기록이 있다.

